

동화

틀니를 찾아서

장나현

“그래서요? 뭘 얘기하세요?”
 굴 안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던 오소리 소녀 오루의 눈이 커졌어요.
 “너 또 할머니 귀찮게 하고 있지! 할머니 주무셔 야 되니까 빨리 자!”
 오루 뒤에서 호두를 깨던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투다투다 투다투다 호랑이 발소리가 빨라졌어.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조차도 소리를 낼 수 없었지. 부엉이도 우는 소리를 멈추었어.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들이 새까맣게 말라 죽었단다.”
 “할머니 피곤하시단 말야. 무서운 이야기는 내일 들으면 되잖니.”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아이 참, 엄마도. 매일 매일 듣고 싶단 말이예요! 할머니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빨리요.”
 오루가 할머니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무릎을 붙잡고 졸랐어요.

“호호호, 그래. 얼마 안가 뭣대지 앞으로 호랑이의 시커먼 그림자가 흑 나타났어.”
 할머니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숨겨진 발톱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호랑이가 뭣대지를 보는 것처럼 호두를 노려보더니 입을 딱 벌렸어요.
 “호랑이가 뭣대지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무시무시한 입을 벌리고 콧 하고!”

우르릉 광광.
 굴 밖에서 천둥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송곳니로 호두를 깨려던 그 순간에 깜짝 놀라 그만 약한 앞니로 잘못 깨물었어요.

빠자-
 할머니의 앞니 하나가 부러져 굴 바닥에 푹 떨어졌어요.
 “아이코, 어쩐담. 틀니가 부러졌네.”
 할머니가 입에서 틀니를 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짜인데. 오루 너 때문에 할머니 틀니가 부러졌잖니!”
 “미안해요.”
 오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엄마, 내일 ‘뫼든지 착’ 가게에 틀니 불러 가요.”
 “열 마을 당나귀 가게 말이지? 엄마는 바빠. 일요일 날 삼촌 올 테니까 삼촌이랑 같이 가.”
 엄마가 말했어요.
 “그대 오루야, 이 할미가 다리가 아파서 멀리 갈 수가 없구나. 일요일까지 기다려보자꾸나.”
 일요일까지 기다려면 세 밤을 더 자야했어요. 오루는 틀니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루는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 몰래 틀니와 부러진 앞니 조각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옆 마을의 ‘뫼든지 착’ 가게에 가려고요. ‘뫼든지 착’ 가게에서는 당나귀가 보라색 껌을 씹고 보라색 침을 바르면 깨진 점지도 착 붙는다고 해서 오루네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랄라랄라-
 할머니의 틀니를 붙일 생각에 오루의 발걸음이 신났어요. 풀쭉 풀쭉 뛰어가다가 다리 위에서는 앞돌기를 세 번 했지요.

퐁당-
 그 순간 틀니가 다리 아래 두리천으로 빠져버렸네요. 오루는 틀니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다리를 건너갔어요.

쿵-
 “아아, 뭐야? 넌 누구야?”
 틀니가 두리천 바닥 돌 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오잉?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신기하고 무섭게 생긴 물건을 들고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살피던 개구리가 틀니를 머리 위에 써 봤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완저퍼 멋져 보였어요.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가 물을 뿜뿜하게 부풀렸어요. 개굴개굴 노래도 불렀고요.

“이번에는 손에 한 번 꺼볼까?”
 틀니를 짝짝기처럼 손가락에 끼고 움직였더니 짝 짝 부딪치는 소리가 재밌었지요. 짝짝 소리에 발을 구르며 탭댄스를 추았어요. 신나게 춤을 추고는 두리천에 누워있는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갔어요.
 뽕뽕한 송곳니로 버드나무에 구멍을 뚫어도 봤지요.

“흐음, 뭐 더 재미난 거 없을까?”
 틀니를 한참동안 바라보던 개구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조심스레 꺼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보였거든요.
 “우하하하, 나는야 괴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 크악!”

먹이를 찾고 있던 왜가리 뒤로 개구리가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왜가리가 부리를 물속에 넣고 있을 때 개구리가 부리 위로 풀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눈앞에 바짝 다가 “크악” 소리를 질렀어요.
 “오악, 괴물이다.”
 깜짝 놀란 왜가리가 몸을 옆으로 비틀며 푸드득 날아갔어요.

두리천 물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 꼬마 수달이 보였어요. 수염이 기다랗게 늘어진 수달의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콧등 위로 풀쭉 뛰어 올라 “크악”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야.”
 깜짝 놀란 수달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개구리가 물 위에 수달처럼 누워 배를 붙잡고 깔깔거렸어요.

장난기 가득한 개구리가 눈앞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따뜻한 모래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노랑 뱀이 보였어요. 개구리는 노랑 뱀을 보자 움찔했어요. 며칠 전 노랑 뱀에게 잡아먹힐 뻔 했거든요.
 개구리의 얼굴이 붉으라푸르라하더니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고는 노랑 뱀의 눈앞으로 용감하게 뛰어내렸어요. “크아아아악”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요.
 눈앞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이빨이 보이자 노랑 뱀이 “쉬익 쉬익” 소리를 내며 풀쭉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하하하, 나는야 괴물. 용감한 두리천의 왕이라네! 크악!”

한편, 그 시간 오루가 ‘뫼든지 착’ 가게에 도착했어요.
 “안녕? 꼬마 오소리구나.”
 당나귀가 한쪽 귀를 구부리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당나귀 아저씨. 정말 깨진 점지도 붙일 수 있나요?”
 “허허허, 그럼, 그럼. 뫼든지 착 붙일 수 있지. 무엇을 붙여줄까?”
 오루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가방 안에는 부러진 앞니 조각만 들어있었어요.
 “헉, 어떡해요? 할머니의 틀니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틀니라고?”
 “네. 할머니 틀니가 부러져서 가져왔는데 오다가 잃어버렸나봐요. 흑흑.”
 오루를 토닥이며 당나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울지마, 꼬마야. 아저씨가 같이 찾아줄게.”



그림=최승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광주시 문화 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2014)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2015)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2017) ▲호랑이사나무 창작소 레지던시입주작가(2019) ▲'Bon voyage' 등 개인전 다수.

당나귀가 기다란 막대기로 풀숲을 헤쳐요. 나무에 구멍이나 있는 딱따구리 집 안도 살펴보고요. 돌맹이를 들쳐다 봤지요. 오루도 당나귀를 따라가며 두리번거렸어요. 땅 속에 난 구멍을 파보기도 했어요. 쫄레나무가 우거진 덩굴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오루와 당나귀는 오루가 건너 온 두리천 다리 앞에 도착했어요.

“틀니다! 아저씨, 찾았어요!”
 오루가 가리키는 곳을 당나귀의 휘둥그레진 눈이 따라갔어요.
 두리천 한가운데에 솟은 바위 위에 꽃꼭지를 목에 걸고 틀니를 왕관처럼 쓴 개구리가 보였어요. 당나귀와 오루가 개구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리를 꼬고 바위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개구리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든 개구리가 위를 올려다봤어요. 개구리에게 놀라 도망갔던 왜가리였어요. 괴물이 아니라 개구리인 걸 알아차린 왜가리가 눈을 무섭게 뜨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까아악, 개구리 살려!”
 개구리가 틀니를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틀니가 날아오자 왜가리가 덤벼들었어요. 개구리를 놓치고는 부리 사이에 틀니가 끼고 말았네요. 왜가리는 부리를 벌리지도 다물지도 못했어요. 아파하는 왜가리 눈에 눈물이 짙짙하게 흘렸어요.

그 때 오루와 당나귀가 왜가리 곁에 도착했어요.
 “우리 할머니 틀니예요.”
 오루가 말했어요.
 “부리에 끼어 왜가리가 아파하는구나. 틀니를 살살 빼볼게. 하나, 둘.”
 당나귀가 틀니를 붙잡고 점점 더 세게 흔들었지만 왜가리 부리에 딱 낀 틀니는 빠지지 않았어요. 아파하는 왜가리가 날개를 퍼덕였어요.

“아,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오루가 왜가리 날갯죽지 아래 간지럼을 태웠어요. 왜가리가 쿨쿨 쿨쿨 소리를 내며 웃었지만 틀니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루가 왜가리 등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보드라운 꼬리 끝으로 왜가리의 콧구멍을 살살 문질렀어요.
 “에-취”
 왜가리가 재채기를 했지만 틀니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어요.

“왜가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오루가 당나귀의 막대기를 빌려 왜가리 부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짹-
 왜가리의 윗부리가 부러지면서 틀니가 속 빠졌어요.
 “아아아아.”
 왜가리가 날개로 부리를 부여잡고 경중경중 뛰었어요.

“당나귀 아저씨, 빨리요.”
 당나귀가 긴 혀를 내밀어 콧구멍을 훑고는 왜가리 앞으로 한 발 다가갔어요. 보라색 껌을 질경질경 씹고는 풍선을 한번 불고 터트렸어요. 그리고는 왜가리 부리를 붙잡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혀를 내밀었어요. 당나귀의 얼굴이 바짝 붉어오자 왜가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는 ‘뫼든지 착’ 가게의 주인이야. 걱정 하지 마. 네 부리를 착 붙여줄게.”
 왜가리는 마지못해 눈을 가늘게 뜨고 당나귀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당나귀가 부러진 부리를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보라색으로 물든 혀를 쪽 내밀어 덜렁거리는 왜가리 부리를 쓰옥, 쓰옥 훑어주었어요. 왜가리의 부리가 착 붙었어요.

“우와, 정말 부리가 붙었잖아! 당나귀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들은 당나귀가 어깨를 으쓱하며 긴 혀로 콧등을 훑었어요.
 “다시는 물고기를 못 잡아먹는 줄 알았지 뭐야. 정말 고마워.”
 왜가리가 짧은 꼬리를 짹 펴고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춤을 추었어요.
 오루와 당나귀도 왜가리를 따라 춤을 추었어요.

오루가 가방에서 앞니 조각을 꺼내 당나귀에게 내밀었어요.
 틀니를 들고 있던 당나귀가 콧김을 크게 두 번 내뿜었어요. 정교한 외과수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처럼 조심스럽게 기다란 혀끝으로 틀니를 훑았어요. 그리고는 앞니 조각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천천히 갖다 붙였어요.
 “착”
 “우와, 정말 틀니가 새 것처럼 붙었어요! 당나귀 아저씨 최고예요!”
 신이 난 오루가 풀쭉 풀쭉 뛰며 앞돌기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잘 가. 붙일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렴.”
 당나귀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오루의 집, 오소리 굴에 돌아왔어요.
 “너 또 혼자 어디 갔다 온 거야!”
 오루를 보자 엄마가 소리쳤어요.
 “엄마, 할머니 틀니를 붙여왔어요.”
 오루가 가방 속에서 틀니를 꺼냈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틀니를 살폈어요.
 “호호호. 정말 깜짝같이 새 틀니가 되었구나. 우리 손녀, 용감한 오루가 꺼줄래?”
 오소리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오루는 보송보송한 할머니 가슴에 속 안겼어요. 그리고는 틀니를 잡은 손을 쪽 뻗었고 할머니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오루가 작은 엉덩이를 흔들며 틀니를 할머니 입에 끼었어요.
 “착”

<끝>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